

미로센터 레지던스 기획 노정숙·참여작가 조인자

“해외 진출 꿈꾸는 지역작가들에 힘 됐으면”

10일까지 10명 참여 결과보고전 해외진출 광주출신 작가 참여



미로센터 레지던스 참여작가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조인자(왼쪽)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프로그램 기획자인 노정숙 작가와 포즈를 취했다.

2일 찾은 광주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1층은 전시 개막 준비가 행사가 한창이었다. 몽고의 바트벨게르 부렌바트 작가는 자신의 작품 뿐 아니라 동료들의 작품도 함께 설치하며 힘을 보탤고,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라 데멘티예바의 작품은 사진과 인공 지능이 결합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막하는 ‘큐레이티드 광주, 같이-가치!’ 전(10일 까지)은 미로센터 레지던스 참여작가 7명과 유지원·문창완·이정기 등 지역 작가가 함께 한 전시로 무등갤러리2에도 작품이 전시된다.

미로센터 레지던스는 기존 레지던트와는 차별화된 기획에서 출발했다. 작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플랫폼 구축이다.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인 셈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문화기획 노정숙 작가와 광주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조인자 작가와 만나 레지던트와 국제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작업을 하는 노 작가는 최근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특히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교류전을 추진하며 지역 작가들이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레지던스 역시 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참여작가였던 러시아 기획자 나탈리아 카메네스키아의 기획으로 광주 미디어작가들의 러시아 전시가 확정되는 등 성과도 보이고 있다. <관련 박스>

“이번 레지던스는 두가지 트랙으로 움직였어요. 첫째는 러시아 등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구성해왔던 나라에서 참여한 작가와 기획자입니다. 또 하나는 광주 출신으로 외국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자리를 잡은 작가들에게 해외 진출을 꿈꾸는 지역 작가들에게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노 작가는 1996년 살롱 도톤에 참여하며 해외에 나갔다. 이후 2005년 프랑스 개인전에 초대받으며 프랑스 작가들과 교류를 해왔고, 2004년부터는 32개국에 참여하는 세계여성미술협회에 참여하면서 교류를 이어갔다. 내년에는 프랑스 엘버프에서 개인초대전도 연다.

2개월전부터 레지던시에 머물고 있는 조인자 작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22세 때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며 유학을 떠났다. 그래픽 디자인으로 활동하다 ‘화이자’ 제약회사에 적을 뒀던 그녀는 몸이 아파 회사를 그만두고 웨스턴 미시간 대학 서양학과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물고 있는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창작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했다.

그녀의 작업실은 100년 넘은 건물 전체가 180여 개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물이다. 2014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여성미술제에 미국출신 작가로 참여하면서 노 작가와 인연을 맺었다.

“회화·조각·사진 등 미술은 물론이고 댄스까지 예술과 관련된 전 장르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칼라마주 예술 현장을 한번에 볼 수 있죠. 매달 첫째주 금요일이면 ‘아트 홉(Art hop)’ 행사가 열려요. 작가들은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신발가게, 식당 등 거리의 모든 가게에도 작품이 걸리죠. 통통 갤러리 등은 물론이구요. 한마디로 지역민의 축제가 되는 셈이죠. 이번엔 머문 예술의 거리 역시 이런 행사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작가들의 해외 진출에 작은 물꼬라도 터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노 작가는 ‘남도의 빛’을 소재로 한 작업과 함께 광주 작가,

공무원, 조선대·전남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 펀딩과 아트 공모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제가 몇년간 접해본 지역 작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면서도 자신을 피알하는 데는 약한 것 같아요. 교류전에 적극 참여하고 펀딩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후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 의외로 많아요. 작가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권합니다. 저 역시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조인자)

노 작가는 작가 교류와 함께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릴 기회도 교류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전남대와 파리 1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20년 넘게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세계미술시장에서 활발히 작품 거래를 하고 있는 허경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미디어작가 10명 내년 러시아서 대규모 전시회

2020년 광주 지역 미디어작가 10명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한다.

연결고리는 미로센터 레지던스 입주작가였던 러시아 기획자 겸 작가 나탈리아 카메네스키아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한 노정숙 작가와의 인연으로 한달간 광주에 머문 나탈리아는 미디어 아트 현장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리서치를 진행했다.

내년 9월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올해 열렸던 러시아-한국 수교 30주년 기념 러시아-한국 정상 회담에서 오고 간 양국 교류 활성화에 따라 내년을 ‘2020 한국문화예술 교류의 해’로 지정, 예술 행사를 준비중인 러시아가 광주미디어아트 작가들 초

대하는 대형전시다. 나탈리아는 광주에 머무는 동안 전시계획과 러시아 지원에 대한 협력회의를 3차례 진행했으며 작가들의 작품과 전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동구 미로센터가 추진하는 국제교류공간거점활동 컨퍼런스 발표에서 광주와 모스크바와의 레지던트 시와 미디어아트 전시의 교류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이남, 진시영 등 지역 대표 미디어 작가를 차례로 만난 나탈리아는 작가들의 작업실과 현장전시,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리서치했으며 귀국 후 ‘2020년 광주예술교류에 대한 협력보고서’를 제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6일, 판소리 스타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박애리, 강진아트홀 ‘희희락락콘서트’ 김준수, 광주공연마루 ‘국악상설공연’



박애리 김준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스타들이 광주-전남을 찾는다.

국악인 박애리와 30인조 국악관현악단 한푸리 가무악코리아가 국악으로 힐링하는 ‘희희락락 콘서트’를 연다. 6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공연은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대중들이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곡 ‘한푸리 2019-강진군이여 영원하라’로 막을 열며 대금산조 협주곡 ‘죽향’,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 협주 ‘신모듬’이 신나는 국악의 세계로 이끈다.

박애리는 국악가요 ‘속대머리’, ‘너영나영’, ‘배 띄워라’ 등으로 관객들과 만나며 태평소 협연 ‘Children Of Sanchez(Finale)’, 사물놀이의 향연 ‘판놀음’으로 흥을 이어간다. 또 광개토 사물놀이패, 마룻바닥 비보이크루도 무대를 장식한다.

관람료는 일반 3000원, 청소년 이하 2000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이며 강진아트홀 대표소와 문화N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국악계의 아이돌로 알려진 김준수가 같은날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는 광주국악상설공연 무대에 오른다.

김 씨는 이날 공연에서 ‘춘향가’ 중 ‘적성가’, ‘어

사출두대목’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4호 판소리 ‘수궁가’ 이수자이자 국립창극단의 간판배우로 자리매김한 김 씨는 강진 출신으로 2013년 국립창극단 역대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했다. 이후 KBS 불후의 명곡,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3 등에 출연하면서 국악을 알리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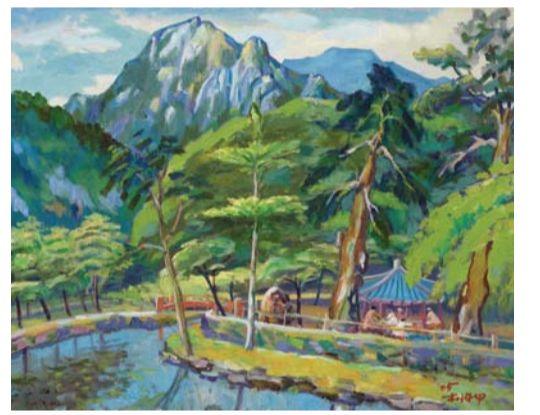
남도의 풍경

박균갑 회고집 출판기념 작품전, 5일까지 갤러리D

“정겨운 남도 풍광을 만나다.” 금산 박균갑 작가 회고집 출판기념 작품전이 5일까지 광주시 동구 중앙로 갤러리D에서 열린다. 교직에서 은퇴한 후 필선을 앞둔 나이에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 작가가 자신의 그림 세계를 오롯이 담은 작품집을 내고 대표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일상 속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는 박 작가의 작품은 풍경화와 정물화가 주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삶의 현장인 남도의 산과 바다, 들과 강을 소박한 터치와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다.

작품 ‘장성 백암산의 여름’은 작가의 중학교 수학여행지이기도 했던 백암사의 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초록으로 가득한 백암산과 시원한 창계의 풍경을 담백한 색감과 붓터치로 보여준다. 한국적인 서정적 감성이 묻어나는 ‘양지’는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는 허름한 고택 대문 앞에 선 소녀와 백구의 모습을 통해 화면 밖 관람객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장성 백암산의 여름’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박작가는 2003년 영광 군남중학교에서 교장을 끝으로 교직생활을 마무리했으며 황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전남매일 미술대상전, 목우회전, 전남도전 등에서 입선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산티아고 순례길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시간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차노휘 작가 여행에세이 출간

“마흔. 적당히 이루었고, 적당한 포기한 채 살아갈 나이. 책임에서 벗어날 나이. 불혹이란 말은 틀렸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억지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채 흔들리지 않기를 갈망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며 적당한 자리를 잡기 위해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틈’을 발견했다.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그 틈이 나를 간절이면서 뭔가를 터트리기 위해 점점 커져갔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09년) 출신 소설가 차노휘가 마흔 넘어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담은 여행에세이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시간들’(지식과감

정)을 펴냈다. 책은 지난해 여름 포르투갈 쪽으로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을 오롯이 담았다. 모두 2부로 구성된 책에는 작가가 직접 걸으면서 느낀 미국의 풍경과 다양한 삶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작가가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우연하게’ 시작했지만 그것은 필연을 위한 가장일 뿐이었다. 지금까지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했으며 2017년에는 프랑스로 떠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거쳐 멕시코까지 900km 여정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번 책에는 생장피드포르-론세스바에스, 수비리-팜플로나, 부르고스-온타나스, 폰세바돈-폰페라다, 사모스-페나 등 31개 구간이 나온다. 그것에



서 보고 느끼며 만났던 풍광과 현지인들의 모습은 생생하다. 작가가 찍은 사진은 당시의 느낌과 상황이 고스란히 전달돼 특유의 분위기를 발한다.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옮겨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발을 딛는 내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게 용기라면 나는 든든한 야군을 확보한 셈이다. 철저히 낯선 공간에서, 무엇보다 언어가 다른 곳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오롯이 혼자 모든 것을 내뉜다는 것. 그것의 혼자가 되는 일이었다. 뒤늦은 ‘독립’이었다.”

한편 차 작가는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장편 ‘죽음의 섬’ 등을 펴냈으며 현재 광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

‘人·水·火·風’ 열쭉

올해 마지막 광주국악상설공연, 3~7일 광주공연마루

광주국악상설공연 올해 마지막 공연이 3일~7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3일은 전통문화연구회 열쭉가 ‘인(人) 수(水) 화(火) 풍(風)’을 주제로 공연한다. 모듬북과 대북, 태평소 연주를 시작으로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한데 엮은 남도민요 연곡, 태평소와 가야금, 북이 어우러지는 ‘아리랑 꿈’을 공연한다.

4일은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무등산호랑이의 기운을 전달하는 타악 퍼포먼스 ‘판굿으로 놀다’를 선보인다. 이어 광주의 먹거리, 불거리를 구경하는 심봉사의 이야기를 장고놀이, 북춤으로 표현한 ‘빛고을 유랑기’ 등을 준비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는 5일 ‘청산에 피는 꽃’이라는 주제로 공연한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장부타령, 장기타령’을 시작으로 윤종호명창이 보성소리로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설움 대목’, 김세종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을 들려준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6~7일 공연한다. 6일은 국립창극단 단원 김준수가 협연하며 7일은 광주시립관현악단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가수 이안이 출연한다. 이씨는 서울대 국악과 출신으로 ‘대장금’ OST ‘오나라’로 데뷔한 후 노래 ‘물고기 자리’로 큰 인기를 얻었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내년 1월1일 재개한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